

강소특구 육성사업 속도 낸다

군산시, 연구소기업 7개사 설립 · 기술이전 사업화 15개사 선정

군산시가 연구소기업 7개사를 설립하고 기술이전사업화(R&BD) 15개사를 선정하는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지난 5월 1·2호 연구소기업 설립을 시작으로 9월에 5개의 연구소기업을 추가로 설립하며 7호 연구소기업을 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공기술이전 사업화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인 연구소기업은 연구기관이 기술이전과 기업 지분의 10% 이상을 출자해 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이다.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면 법인세 3년 면제와 취득세 감면 · 재산세 7년 면제 등 지방세 감면 세제 혜택과 양

산 제품 제작, 시험 분석, 마케팅, 기술금융 지원 등 성장단계에 맞춘 강소특구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고부가가치 첨단기술기업으로 육성을 지원받게 된다.

군산 강소특구 내 연구소기업은 배터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등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 기업인 지티엠(주), (주)디엔에이모티브, 에너지프론티어(주), 두이엔지(주), (주)올드브릭스테이션, (주)이쓰리 6개사와 레토르트 식품 제조 기업인 (주)XGS동우 포함 7개사가 있다.

또한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R&BD)에 후보기업 30개사를 발굴해 특구제단의 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지난 23일에 군산

소재 기업 15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이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1년간 기업당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R&BD(제품화, 양산화)를 추진하게 된다.

올해 미선정된 15개사는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과 사업화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내년도 기술이전사업화에 제도전환 계획이다.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특구 사업의 체계적인 사업기획과 기술사업화로 기술 집약도가 높은 기업을 육성하고 창업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청년들(창업지원센터)은 오는 29일까지 군산 롯데몰 1층 중앙홀(비단홀)에서 2021 군산시 창업가 시장개척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초기창업가, 판로개척 날개 달다

군산시 청년들, 창업가 시장개척단 프로그램 추진

군산시 청년들(창업지원센터)은 오는 29일까지 군산 롯데몰 1층 중앙홀(비단홀)에서 2021 군산시 창업가 시장개척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과 롯데몰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내 청년창업가의 사회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롯데몰 내에서 기술창업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부스 운영과 더불어 시민들과 함께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와 특산물 등 차별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10개의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지역 창업가 제품의 우수성을 고객들에게 널리 알려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청년창업 희망키움, 수제창작플랫폼 운영, 청년창업 주거지원 등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100여명의 역량있는 초기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청년들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원스톱 컨설팅 및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들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참조하거나 전화문의(☎063-471-1555)하면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하림, 동반성장지수평가 '우수' ... 축산업계 최초

지난해 '양호' 등급에서 상승... 하림 포함 총 10개 기업

(주)하림이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축산업계 최초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해 '양호' 등급에서 한 단계 올랐다고 한다.

'양호'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한 기업은 하림을 포함해 총 10개다.

하림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상생해 왔다. 특히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을 높이고 법정 기준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심의위원회와 자율준수 담당자 회의를 하고 있으며, 익명정보 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편드를 조성해 협력사 금융지원,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위생 · 기술 지원, 교육과정 참여를 통한 전문성 확대, 인력채용 지원 등도 한다.

협력 농가에는 사육 변상비 탕감, 선급금 지급확대, 회사사육비 지급 가축공제보험 일괄 가입 지원 등으로 상생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박길연 대표이사는 "하림 계약 농가를 비롯해 대리점, 협력업체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도입해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대 · 중 ·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국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보통 양호, 우수, 최우수 5단계로 나눠 평가한다. /뉴시스

군산대 링크플러스사업단 · 관련 기관, 단편영화제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 인문산학협력센터 등 7개 기관이 참여 대학 지자체 민간 등을 아우르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군산대 복단편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최근 군산시민예술촌 공연장에서 진행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 인문산학협력센터(사업단장 김영철), 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회장 신상준), 군산시민예술촌(촌장 박양기), 씨네군산(회장 김정일), CineX(회장 이진

우), 한국문화예술교육사연맹회(군산지부장 이진경), 아이엠군산(대표 이영선) 등 총 7개 단체가 참여하여 예산 부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이 협약은 군산 영화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전국 규모 단편 영화제 개최 및 역량 있는 지역 인재 발굴을 통한 취 · 창업 역량 강화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참여기관은 예산지원, 정보 및 네트워크지원, 홍보물 제작 등 각 기관이 잘 할 수 있는 재능을 기반으로 협업을 통해 군산대복단편영화제 사무국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이번 영화제 공모는 일제 강점기 군산에서 개관한 전북 최초 극장인 '군산좌'의 전통을 잇고 군산 영화의 거리 개복동 주변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24초 영화 공모전의 주제는 '당신의 하루가 한 편의 영화가 됩니다'로, 누구나의 추억이나 하루를 담은 동영상을 인트로와 크레딧을 제외한 24초 분량으로 제작 · 편집해 응모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체력인증센터, 계층별 체력왕 선발대회

군산체력인증센터는 만 13세 이상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최고 체력왕을 뽑는 '체력인증센터 2021 체력왕 선발대회(이하 체력왕 선발대회)'를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체력왕 선발대회는 27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체력인증센터 1층에서 각 계층별로 진행된다. 이번 선발대회는 청소년기(만 13세 ~ 18세), 성인기·청년(만 19세 ~ 39세), 성인기·중년(만 40세 ~ 64세), 성인기(만 65세 이상)로 구분해 진행되며, 체력왕을 포함해 총 80여명을 선발한다. 계층별 체력왕으로 선발되면 상장과 트로피, 3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된다.

접수는 28일부터 가능하며 센터 방문 후 대회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 측정기간은 ▲성인기(청년·중년)는 27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가능하며, ▲청소년기·어르신기는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전 연령 측정 가능하다.

특히, 주간이용이 제한되는 시민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2일, 9일, 16일, 23일), 대체공휴일(4일, 11일)에 추가 운영한다. 단 28일은 센터 일정상 측정이 불가하다.

체력측정은 약 30분가량 소요되며, 참가자는 만 나이에 해당하는 종목 측정하게 된다. 체력왕 선발방식은 인증등급이 높은 인원 중 측정종목의 총합이 높은 사람이 체력왕을 차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선발방식은 '군산체력인증센터' 네이버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노인건강검진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군산시는 2021년 노인건강검진사업 지원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노인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 노인건강진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한 실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매년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내용은 1차 검사인 치과검사를 포함 18가지 항목을 실시하고 2차 검사는 1차 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에 대해 치매검사를 포함 2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질환자에 대해 해당 질환별로 맞춤형 진료 및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지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사후관리와 통합관리를 수행해 오고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 복지부 노인일자리 지원 평가대회 최우수상

익산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2018년 이후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지자체가 됐다.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 익산지회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인 최우수상(성과금 1500만원)을 받았다.

또 전북익산시시니어클럽은 복수유형 부문 우수상(성과금 1500만원), 익산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서비스형 부문 우수상(성과금 500만원)을 따냈다.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은 시장형 분야 수상(성과금 500만원)이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소득보전과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해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뉴시스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